

서론1: 장경원 선생님 작성(도서: 에이트(이지성))

Prologue

누군가는 할 것이라는 착각?

1. 코로나와 사람들에 관하여 돌아보았습니다.

마스크 착용, 자가격리에 응하는 것, 여행이나 쇼핑과 같은 습관을 절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라도 타인의 감염을 걱정하여 나의 시간과 감정 그리고 문화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행위.

이런 타인을 향한 배려와 희생을 할 수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던 일종의 이타심 Test는 아니었을까요?

개인, 공동체, 국가 또, 넓게는 지구촌 차원의 미덕이 절실했던 시기는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코로나 테스트라고 봤습니다.

또, 이 같은 덕행이 사람을 향한 사랑의 의지로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대 의식으로 이어지는 공감, 무관심이 아닌 관심, 깊은 인간애를 보여주는 톨레랑스, 관용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나 온유에서 나오는 자기 절제와 같이 아름답다고 하는 가치 실행은 어째서 아무나 할 수 없는 능력이고 역량인가요? 정말 모두가 하고 있나요?

입을 열어 하는 100마디 말보다 필요한 이들을 향해 열리는 지갑의 영향력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2. With 코로나, AI 기반 사회 시민 윤리와 세계시민교육

코로나와 함께 급속히 변화한 점은 새삼,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 것과 같은 인식의 변화, 습관의 변화는 물론, 무의식에까지 파고들어 선택적 맞춤형 소비를 부추기는 빅데이터 활용 온라인 플랫폼의 manipulation을 분별하려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개발을 요구했습니다. 어른들과 상관없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메타버스 세계의 등장 등 혼돈의 시대를 타고 사회적 시스템도 자연스레 달라지고 있는 것이지요.

기존의 가치나 의식이 지배하던 삶의 생태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삶과 삶으로 이어지기에

우리가 교육을 통하여 외치던 앎과 삶이 일치하는 가치 실현이라는 교육의 콘텐츠가 지금도 유효한가요?

저들이 할 것이라는 착각?

3. 동시대에 존재하고는 있으나...

진정한 공감과 소통이 부재한 전혀 다른 두 세대가 공존하는 이상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은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내어맡기고 물 흐르는 대로 내려놓아도 괜찮은 걸까요?

이런 지구를 우리에게 넘겨준 것은 기존의 잘못된 가치나 교육 때문이라며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 교육 콘텐츠와 기성세대를 부정하고 소통을 차단하며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를 세운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하여 사는 것은 아닌가요? 소위 사이버 학습 혁명의 내용이 아닐까요?

4. 최근 한 영상 콘텐츠 플랫폼에서...

세계가 괄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죠. 세계인이 열광하려면 우선 공감해야 합니다.

만약 한 나라를 정복하려고 할 때 군사력, 경제력으로는 장악이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설득이나 점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게임 뿐 아니라 해당 플랫폼 1위에서 10위권 안 인기 영상물 7개가 대한민국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 영상 콘텐츠 대다수에는 다른 나라 콘텐츠에 들어있는 섹스나 파티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치열한 서민이나 시민들의 삶의 민낯을 드러내며 그 속의 희로애락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삶의 본질이나 인간의 본성을 고찰하고 성찰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각자의 수준에서 말이지요.

프리카리어트 , 구원의 문제

5.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상 속 등장인물 중 게이머들은 공통의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놀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집중해서 할 수가 없는, 매순간 빛에 쫓기는 지경입니다. 꿈도, 희망도 자유도 선택할 여유가 없습니다. '빛을 갇아야 하는데 어떻게?'라는 답이 없는 질문에 목숨을 겁니다. 일생을 겁니다.

AI 기반 사회의 새로운 계층, 불안정한 노동자 프리카리어트와 너무도 흡사합니다. 인공지능보다는 실력이 못하여 정규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디선가 불러주어야 겨우 단시간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노숙자는 아닙니다. 남녀노소 학력, 지역 상관없이 모두 포함된 이들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인 분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제 노동 권위자인 가이 스텐딩교수에 의하면 이들은 AI 기반 사회의 매우 두꺼운 시민층을 형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고 청년들이고 다음 세대 아닐까요? 나 아닐까요?

이들의 삶과 삶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런데도 이들 중 대다수는 무상교육의 대상자일 것이고 또 교사일 것입니다.

자신도 불안한 상황에 존재하면서 다른 이들의 필요에 집중하고 배려한다는 것이 의지적으로 가능할까요?

자신도 문제 속에 있으면서 타인을 건지는 구원의 문제해결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AI 기반 사회 456?

6. 오징어 게임을 구원에 관한 게임으로 보았을 때,

동굴 속 바닥을 경험하다가 어찌어찌 동굴 밖으로 나와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465번은 이전의 자신과 같이 영혼 육을 사로잡힌 채 몽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어두운 동굴로 들어갈까요? 실체를 보지 못하고 비추어지는 그림자를 실제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까요?

교육의 본질, 통찰적 콘텐츠

7.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과학이 찬양받는 시대, 구글의 CEO가 기부를 기계에 돌리는 이 시대에 교사인 나, 기관인 학교, 교육청, 교육부는 어떤 시민의식, 세계시민 의식을 지녀야 할까요? 또 어떤 내용의 통찰적 콘텐츠 개발에 힘쓰며 교육해야 하는지 플라토의 동굴 비유를 연계해보았습니다.

여전히 인재는 절실하지만 갈수록 양성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말이지요.

예를 들어...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인재

정의로운 지성을 가진 인재

낮은 자세로 감사하는 인재 등 말이지요.

무엇보다 저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네가 동굴의 벽에 그림자를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실에 그저 안주한 상태로 그림자를 쫓느라 끊임없이 동굴의 출구를 찾는 일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이제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8.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나무와 숲을 보기보다는 늘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대지의 본질을 붙들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교육을 통한 의식의 변화는 교실에서 준비되며 그곳에는 교사와 학생이 있습니다.

또 학부모가 있습니다. 또 기관들도 있고 거기에는 여러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일, 여러 차원의 소통을 통한 연대 및 미션의 발견!

이타적 희생의 미덕이 다시 새롭게 교육의 핵심 가치로 아이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너는 누구인가? 무슨 일을 어째서 하고 있는가? 네가 하는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다음 세대와의 화해를 위한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하는가?

AI 기반 시대를 초월하는 소크라테스식 질문

본래 과학은 인간의 호기심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학문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과학으로 답을 구하지 못하는 질문은 철학이나 종교의 영역으로 가져가 답을 얻으려 탐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과 타존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관계를 맺으며 세계관도 확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는 여행을 인생의 의미로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짜와 진짜, 가상과 현실이 불명확한 유니쿼터스 metaverse시점이 온다할지라도 평화문화는 계속 유지되고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계속되어야한다면 오늘 우리가 구하는 인재상을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실존하게할지, 그러한 사람들이 세계를 구성하도록 도우려면 무엇을 해야할지 질문합니다.

1,2,3,4차의 혁명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면면히 존재하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 나는 아테네인도 아니요, 그리스인도 아니다.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

아주 오래된 미래~ AI 기반 시대를 초월하는 소크라테스처럼, 삶의 본질을 통찰하는 아이들의 질문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호기심과 질문을 도울 교육을 구상하며 잠시 펜을 놓겠습니다.

서론2: 문주호 선생님 작성(도서 : KAIST 김진형 교수에게 듣는 AI 최강의 수업(김진형))

초지능시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
AI 원리, 핵심 기술, 최신 이슈를 한 권으로 읽는다,

책 표지의 문구가 눈에 딱 들어온다. 그렇게 이 책에 매료되어 선정하게 됐다. 2021년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에 지원하여 경쟁을 뚫고, 강원지역을 대표하는 4인에 선정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여러 가지 재미있고 보람된 활동이 있지만, 그중에 중앙선도교사 AI연구회 활동은 필자에게 도전이자 배움의 시간이었다.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무모한 도전은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계속될 것이다. 첫 출발은 각자가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하여 월2회 온라인으로 나눔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평소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지라, 인터넷 서점을 돌아다니며 여러 책을 살펴보았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눌 책 'AI 최강의 수업'을 선정하게 되었다. 저자인 김진형 교수는 과학자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이다. 그렇기에 해당 책의 내용은 매우 어려운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반부의 내용이 필자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 만약, 혼자 읽고 공부하였다면, 이 부분에서 포기했으리라. 그러나, 집단지성을 위한 발표자이기에 졸려운 눈을 비비며 읽고 또 읽었다. 잘 모르는 부분은 인터넷 사전을 살펴보면서 안간힘을 썼다. 근래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힘들었다..

누구나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목차를 주로 살펴보고 책을 고른다. 목차의 구성이나 내용의 연결성도 살펴보지만, 무엇보다도 소목차간의 쪽수를 살펴보는 편이다. 즉 한 단락이 너무 호흡이 긴 책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끊임없이 써 내려가고 싶은 의도는 알겠으나, 독자의 입장에서 너무 길면 읽기가 불편하다.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20쪽 이내가 가장 읽기가 좋아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 책을 선정했다. 아마도 그런 기준은 필자밖에 없을 것이다. 하여튼 그렇게 이 책은 필자와 독서라는 전쟁터에서 아군으로 만나게 된다. 목차를 살펴보면 대목차 3개, 중목차 5, 12, 9개로 구성되어 총 26개로 되어 있다. 여담으로 이공계 계열 책들을 읽다보면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대목차안에 중목차나 소목차의 비율이 제각각이다. 이에 비해 인문학관련 책들은 더 자유로운 내용을 다루면서도 목차의 개수와 내용의 비율이 일정하고 균등하다. 참 재미있다. 이렇게 인생이라고도 생각한다. 배움으로 인해 생기는 차이가 각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필자 또한 그런 원리속에 살고 있는 한 피조물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다.

파트1 '인공지능이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 우리의 세상'은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지금의 내 삶을 바꾸고 있는가에 대한 과학자로서의 저자의 시각이 설득력이 있게 와 닿았다. 서점에 가면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이 포함된 책들이 즐비하다. 인공지능 쇼핑이 유행인 듯, 제목만 그럴싸하지 내용은 거의 복사 수준의 책들이

허다하다. 그에 비해 이 책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동일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이 좋았다. 대부분의 책들은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데 반해, 저자는 왜 이런 기술이 등장했고, 그로 인해 지금 삶에 이렇게 적용하여 살고 있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써 내려 가고 있다. 뭔가 대단한 발견이 아니라는 생각을 기저로 담담히 적어 나가는 문장의 필체가 또한 마음에 든다. 마치 “인공지능이 도깨비 방망이니 빨리 책도 읽고, 공부도 해라”고 잔소리하는 엄마처럼 여겨지지 않아서 좋았다. 옆집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인공지능이 지금 이렇단다 라고 읊조리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렇게 1시간도 안되서 파트1을 다 읽게 되었다.

보통의 인공지능 책들은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정도에서 끝난다. 하지만 저자는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가장 넓은 개념으로 포함시킨다. 그런 저자의 경험과 시각이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필자에게는 새롭고,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사실 컴퓨터의 발달부터 인공지능의 출발을 부정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컴퓨터의 다양한 기술에 대한 원리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잘 소개하는 글이 없다. 왜냐하면 어렵고 지겹기 때문이다. 다양한 시리얼 넘버 같은 기종의 소개와 제품들은 사실 필자도 어렵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를 논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공부한다는 것은 ‘앙꼬없는 찐빵’을 먹는 것과 같다고 본다.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이를 결합한 다양한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파트2에 집필하고 있다. 만약 그런 내용을 어려워하는 독자라면, 과감히 넘어가도 좋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절망의 나락에 빠져 책을 손놓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파트3로 넘어가도 나름대로 건질게 많다. 특히 연구회 활동을 하는 교사들에게는 파트1과 파트3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대화거리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세계를 탐구하고자 한다면 파트2를 놓치지 말 것을 강력히 권한다.

2016년은 대한민국 인공지능계의 변화를 이끈 중요한 시기이다. 인공지능을 크게 알리는 사건인 알파고와 이세돌의 격돌을 시점으로 대중들은 크게 요동친다. 과거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제퍼디!>라는 방송 퀴즈쇼에서 사람들을 물리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는 퀴즈쇼는 지식에 대한 시험이었기에 사회에서는 충분히 인간이 질 수 있다는 자기 위안적인 생각들이 강했다. 그래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다. 게다가 그러한 모습은 TV를 통해 생중계로 시청하지 않은 탓으로 별로 파장이 크지 않았다. 과거에 체스 챔피언과 ‘딥블루’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과의 시합은 유럽 사회를 경악케 했음에도, 동양권에 속한 대한민국은 뭐 그럴수도 있지. 라며 쉽게 치부했던 듯 하다. 그러나 경우의 수가 몇 백, 몇 천가지인 바둑을, 생생하게 눈 앞에서 펼쳐지는 생중계를 보면서 우리는 현실로 깨닫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냄비 문화로 단점도 있으나, 장점도 많다. 그런 문화적 특성을 보여준게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투자다. 그때부터 정부기관과 대기업들은 너도 나도 인공지능 관련 부서를 만들거나

더 강화하고, 투자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계에 몸 담고 있는 교육자로서 교육이 좀더 빠르게 인공지능 분야를 학교 수업에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학습부진이라고 호칭되는 아이들의 실제적인 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교사와 학생에게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사실 담임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지도할 수는 있지만, 이는 교직에서 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교사의 열정, 노하우 등에 의해 학생들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교육적 혜택을 받는다. 물론 대부분의 교사들은 최고의 학습 도움을 주고 있으나,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최고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학습 패턴이나 지도법을 메뉴얼해서 대부분의 학습부진아 같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구제하는데 인공지능 프로그램만큼 좋은 것이 없다. 교사도 인간이다. 짜증도 나고 힘들때도 있다. 그런 교사에게 좀더 쉽게 학생들을 파악하고 학습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딥러닝의 도입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필자가 제시한 표를 살펴보면, 금융업이 2016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투자액 상승을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은? 지속적인 개발이 중요하다.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개발만큼 중요한 것이, 일거에 투자해서 기반을 만들어 놓는 엄청난 기초비용이 요구된다. 교육부의 발빠른 행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을 하는 학교 공간과 교사들에 대한 연수 및 인프라 구축이 느리다. 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을 선도할 인재를 요구하는데, 그 공급처인 학교는 이제야 걸음마 수준이다. 이런 행보라면 또 교육은 뒤쳐진다. 초반에 물량 공세라 할 만큼 교육에 대한 인공지능 제반 시설 확충과 교수자원 확보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너무 정책적 발언을 한 듯 하지만, 교사로 꼭 짚어주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했기에 속은 시원하다.

다시 책의 내용으로 돌아가면, 고흐의 <밤의 카페> 화풍을 배운 인공지능이 여행 중에 찍은 사진과 고흐풍으로 바꿔서 제작한 그림에 '뜨악'하고 놀라기도 했다. 예술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관여할 거라고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에 더 그렇다. 예술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그런 능력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수 세기를 인간들은 믿어왔다. 필자가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기존의 유명 화가들의 그림에 비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조금도 뒤쳐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능력이 높지 않아서 그런지 오히려 '더 잘 그렸네'라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필부에 속하는 필자에게도 이런 감응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품들이 경매시장에서 몇 억에 팔리다고 하니,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어떤 면에서는 무섭기까지 하다. 어디 그뿐인가? 책에서도 소개하듯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GPT-3가 작성한 에세이를 읽어보라.

서두 부분에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로봇이다’라고 쓰지만 읽어도 읽어보는 이들은 그 문장력과 표현력에 인간이 쓴 글로 착각할 정도이다. 특히 인간을 설득하는 그 말. ‘날 믿어. 우선은 인간을 소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였다.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름이 돋는다. 인공지능이 자신을 ‘나’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랍고, ‘우선은’이라는 표현처럼 경중을 따져서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야라는 상대를 안심시키는 화술에 더 놀라웠다. 더불어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표현처럼 인간에게만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모습에 마치 인격이 있는 영화속 로봇같은 느낌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도 차츰 인공지능은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필자도 자주 ‘다이소’를 간다. 처음에 개장했던 초창기에는 카운터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최근에는 어떤가? 무인카운터에 가서 바코드만 찍으면 자동으로 등록되고 결제까지 된다. 그뿐만 아니라, 나오면서 자동차 번호만 입력하면 주차비는 무료가 된다. 이 모든 것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시스템인 인공지능의 발전에서 오고 있다. 저자가 소개한 ‘카운터 없는 점포’도 속속들이 대형마트에 하나둘씩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이 설 자리가 준다고도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이를 관리하고 수리하며, 정비하는 업종은 더 많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필자 또한 다른 시각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여유로운 삶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 반복적인 패턴의 일들을 차츰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진다. 인공지능을 통한 대량생산과 경제창출로 제공되는 막대한 부를 정부가 강력히 나서서 재분배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지금보다 훨씬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것이다..

로봇기술 또한 필자의 이목을 끈다. 기능도 그렇지만, 외관도 인간에 거의 가까운 로봇이 창조되고 있다. 심지어 인간처럼 이름도 있다. 학교 현장도 이런 변화의 물결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강조되어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이 수업에 적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핑톡’이다. 필자도 핑톡을 사용해 보지는 않았으나, 교육청에서 학교로 제공한 팜플렛과 같은 홍보자료를 자주 접하고 있다. 교사 대 다수의 학생이 아니라, 1 대 1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의의가 있다. 비록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사용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해서 밝혀야겠지만, 그런 시도는 매우 훌륭하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처음 도입한 사례라서 교사들의 사용법에 곤란함을 호소하지만, 학교에 이런 방법들이 교수법의 한가지로 잘 정착하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맹신이나 거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의 교수방법으로 적용하는 교사들의 유연한 적용과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에 대한 저자의 글과 필자의 경험을 적었다면, 이제는 좀 더 원리론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우선은 인공지능을 하면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수없이 듣고 본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정의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키백과에서는 빅데이터를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 관리 및 처리 소프트웨어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크기의 데이터를 말한다. 그럼 자료는 어떻게 수집할까? 말 그대로 인간이 기계의 힘을 빌려 자료를 축적해서 입력해야 한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스캔이나 자판을 이용해서 해당 내용들을 복사하거나 편집하여 저장을 해주어야만 데이터가 생성된다. 일단은 인간이 1차적인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도서관에 책을 검색하고 해당되는 페이지를 찾아 복사하는 과정은 모두 인간이 입력하고 복사해서 저장해 놓은 것을 컴퓨터가 빅데이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빅데이터는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의 모든 것이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 위키백과를 검색해 보면,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유한한 수의 규칙에 따라 구별 가능한 기호들을 조작하여 입력 정수에서 출력 정수를 생성하기 위한 일반화된 작업을 정의한다. 너무 어려운 말이 많다. 필자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이란 쉽게 말해 한 개의 키워드나 문장과 관련된 다양한 파생 키워드와 문자를 연결해 주는 다리라고 생각한다. 즉 ‘엄마’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아빠’, ‘가족’, ‘사랑’, ‘여자’ 등 다양한 관련 키워드들이 묶여서 다양한 정보를 유출하고 조합하는 단계에 속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하나의 문장이나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터넷에서 검색창이 이런 역할을 한다. 이처럼 우리는 인공지능의 가장 기초적인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과 연결된 다양한 활동을 하루에도 수십번하고 있다. 위키백과에서 해당 단어들을 검색해서 정리하는 활동도 모두 이러한 원리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산출물인 것이다.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뇌의 형태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근거로 컴퓨터가 진화를 거쳐, 지금까지 이르렀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술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교사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배워야하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렇기에 필자 또한 일면일식도 없는 전국의 선생님들과 온라인상에서 만나 공부를 하고 있다.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로의 위치와 필자를 거쳐 간 수백명 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 나를 이끌고 있다. 그렇기에 21세기를 선도해야 할 학생들에게 진보적이면서, 인간중심적인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교사들의 자기당착적인 교만을 벗어나, 새로운 지식과 융합을 통한 개선점을 찾아 교육에 적용하는 노력이 인공지능과의 만남으로 교육계에 긍정적 효과를 일으키리라. 그렇기에 어렵지만, AI 적용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본론에서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다. 더불어 인공지능 소양 교육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심층적으로 나누고자 한다.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사회에 이익이 될지, 불행이 될지에 대한 철학적인 쟁점도 재미있을 듯 하다. 이를 위해 저자의 책을 포함한 다양한 국내외 논문과 책의 내용을 함께 비교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독자들이여! 인공지능의 동아줄을 잡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해보자.

서론3: 박재희 선생님 작성(도서: 포스트휴먼 학습론(박휴용))

ZOOM으로 만나 톡톡 두드리는 인공지능 이야기

스마트 기술은 개인의 취향과 선택에 따라 맞춤형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말은 기존의 기기처럼 대중의 취향을 표본에 따라 대량 생산으로 유형화하여 선제작 대량주문 생산하는 체제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취향대로 직접 설계하여 제작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직접 설계하고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스마트 기기 및 프로그램 활용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기술의 수명도 짧아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거듭하여 익혀야 한다는 점이다.

I. 2020 코로나 대전환과 스쿨비즈니스 원년

2020년은 교육현장과 교직의 특성에 대한 대전환의 해였다. 학교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공간처럼 보였고 유일한 대안은 온라인 학습도구밖에 없어보였다. 현장의 많은 동료들은 이 산을 각자 알아서 넘어야 했으며 알아서 넘은 결과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 개인 스마트폰으로 조약하게 녹음을 입힌 영상자료, 음성과 영상의 싱크가 맞지 않아 재생이 어색한 수업영상 모두 힘들게 제작한 결과였으나 전문 영상제작업체의 결과물과 비교당하며 비난받았다.

작년 온라인 등교를 앞두고 원격수업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떠오른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각종 프로그램과 글씨체, 사진, 동영상 등 기본적으로 콘텐츠 제작기술에 익숙해지기도 전 교사들을 압도하는 각종 저작권에 대한 경고와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접 캠코더를 통한 영상촬영으로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임을 깨달았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콘텐츠가 다양하더라도 혁신적인 기술의 편리함과 다양한 기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이라는 비용을 투자해야 했다.

사회와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기술은 준비비용과 사용비용, 그리고 유지관리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되어야 사용할 자격을 검증받는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더구나 정보보안과 비밀엄수 등의 이유로, 정보 활용 및 미디어 교육이 교육현장에 제대로 착근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던 교육 상급기관이 코로나 19로 인해 무기력하게 각종 테크 시장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그간 완고했던 교육상급기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큰 충격을 주었다.

II 현장의 변화는 내부에서, 그러나 상급기관의 변화는 외부에서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민간 사업자(ZOOM, 구글 스위트, MS팀즈, 패들릿 등)에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상황은 여전히 현장 곳곳에서 심리적 저항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수업도구들 만한 것이 없는데 유료도구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학생들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주지 않는다. 납득할 수 없는 이

유료 원격수업을 위한 기자재를 집행하지 못하게 직간접적으로 지침에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에듀테크 기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실물화상기 구입을 자제하도록 하여, 스마트 소형 실물화상기도 지원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 학생의 개인출결과 과제수행점검, 평가관리 등 관리·분석해야 할 교육정보의 종류와 규모가 점점 방대해지고 빅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이 긴요해지고 있다. 해당 영역이 교원 1인의 능력만으로 관리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분석전문가와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자 인력 양성은 미흡하다.

2020년 6월 원격수업이 정착되던 시기가 생각난다. 하반기 전면등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급기관이 현장의 원격수업 전문성과 원격수업자료, 원격수업 지원 요구등을 귀찮아하는 조짐이 보였다. 온라인 개학 초기 요청한 마이크 장비는 이리저리한 사정으로 지원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었으며, 교사들은 각자 카카오 단톡방과 문자메시지, 휴대폰 녹음기 등으로 곤궁하게 수업을 운영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현장 교원들이 자생적으로 구축한 원격수업 플랫폼에 자료를 탑재하고 공유하였다. 상급기관은 민원 한 통에 공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 2~3회 이상 직접 얼굴을 보고 화상으로 대화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물으라는 잠꼬대 같은 봉화(정정하겠다. 공문이다)를 올렸다. 현장은 알아서 잘하고 있었는데 상급기관은 현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으며, 잘하고 있는지 몰랐고 잘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제대로 하라!'고 봉화를 올렸다.

신(新)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것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지 않는다.

신기술은 의사소통의 편리성에 기여한다. 그러나 조직의 폐쇄적 문화를 저절로 해결해주지 않는다.

기술발달로 사회적 소통망에서 대중의 관심을 모으기 용이해졌으나 그 대상이나 의견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거나 윤리적으로 온당한지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사회적 소통망에서 통용되는 정보가 반드시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신기술은 인간을 감정과 주관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신기술은 인간이 경제적, 사회적 자본에 귀속되는 것을 더욱 강화한다.

교육의 공공성이 보장되고 교육의 본질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신기술의 영리성이 교육현장을 압도하고 왜곡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좋은 신기술과 나쁜 신기술은 없다. 교원에 대한 지원은 나쁘고 학생 지원은 좋은 것이라는 이분법은 사라져야 한다.

4차산업혁명이 초월과 융합적 사고를 발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인간의 흑백논리는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학습자의 미디어 소양과 조절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기기와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블렌디드 러닝과 에듀테크 추세는 학습자의 기기활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반면, 교원의 유료 기기 및 유료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지원은 금기시하고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Ⅲ. 인공지능과 세계시민윤리

3-1. 사랑의 다림줄 식구들을 만나다

올해 2021년 결성된 사랑의 다림줄에서는 AI와 세계시민윤리를 함께 연구한다는 점에서 나의 관심을 끌었다. AI는 많이 알려진 소재이지만 그 만큼 생소한 부분이 많은 영역이다. AI가 지니는 사회적 이슈와 관심사, 미래에 갖는 영향력과 윤리적 문제를 도출하여 탐구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여러 형태의 매체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현장 실천방안에 대한 통찰과 혜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주는 초연결과 초공간, 시간초월성의 특성에 대해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여러 매체의 정보에 대해 접근하던 터라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은 인간의 도덕성, 더 나아가 세계시민윤리라는 공동체적 시민성 영역과는 괴리되는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다. AI 기술에 대해 막연하게 인간의 감정을 철저히 제거하였기 때문에 논리와 분석, 종합력으로 인간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고 극복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오히려 주관과 감정이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자아가 있는 다른 존재에 의해 수단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발전하여, AI 기술에도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개입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다만 AI 기술 자체가 인간처럼 자아를 형성하고 인간처럼 사고하게 될지는 쉽게 결론지을 수 없었다. AI 대 인간의 대결구도와 AI와 인간의 관계 형성의 문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비슷한 궁금증과 고민을 갖고 있던 분들을 만나 올해 탐구의 여정에 오르게 되었다.

3-2. 사랑의 다림줄 여정을 정하다

각기 다른 장소에 있었지만 ZOOM으로 만난 네 분의 현인賢人(이후 멘토A, 멘토B, 멘토C, 멘토D라 칭하겠다)

함께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대 보편적 인간성의 본질과 정수(精髓)를 탐구하고 현재진행형인 미래에 맞게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간적 윤리를 재해석하기 위해 인공지능 책에 대해 탐독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공지능이 포함된 책은 인공지능이 발달한 미래예측 서적, 인공지능 활용기술에 대한 테크 서적,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철학 서적, 인공지능 적용 교수법 책,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문가와 경영인들의 서적이 다양하게 검색되었다. 범위가 넓었으므로 사랑의 다림줄 멘토들은 관심분야에 해당하는 책들을 간단히 소개한 후, 책에 대한 내용과 토의 질문들을 정하여 발제 후 토의 진행을 주관하였다.

멘토	책 제목	특성	토의 과정에서 겪은 소회
멘토A	에이트	4차산업혁명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고 미래사회 변화를 관조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을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간형 로봇과 형체를 갖추지 않은 체계로서 인공지능이 머릿속에 잘

			정립되지 않아 토의 진행에 애를 먹었다.
멘토 B	AI 최강의 수업	문득 갖게 된 질문이다. 특이점을 넘어선 순간을 걱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하자면서 기능과 역량 만능주의로 흐르는 세대를 경계해야 하는가.	AI가 독식하는 세상에 대해 자유로운 상상을 하게 되었다. 토의가 아닌 상상공작소가 되었다. AI가 주는 막역한 공포심을 갖거나 대책없는 낙관론만 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고 생각하게 되었다.
멘토 C	인공지능, 법에 재미를 묻다	인간의 본질과 인공지능의 기능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책	우리가 사용하는 가상환경의 계정도 독립된 객체로 인정받는다면? 인간의 불완전성을 비합리적으로, 기술의 냉정함을 온당함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교우위론적 입장이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멘토 D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어렵지만 재미있고 낭만적이며, 흥미진진하다. Krashen의 이해가능 입력이 생각난다.	암묵지와 명시지를 멋있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탈진실의 시대에 진화론의 주장과 정상과학의 입장에 대해 접근해 봄으로써, 사유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탐구와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으며 가치있는 발견은 먼 훗날에도 재조명된다는 통찰을 준다. 인간의 평생학습과 기술이 갖는 성능 향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서론4: 최동민 선생님 작성(도서: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정상조))

'올해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본다!'

아. 진짜. 어떡하지? 떨어졌다. 내신을. 무려 4년 차인데. 관외로 집값 비싼 동네에 가려는 것도 아닌데. 무려 관내에 면에서 읍으로 가려는 것인데. 나름 치밀하게 전략을 짰는데. 내신을 전혀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써봤다는 교사도 오히려 나보다 늦게 전입 온 교사까지 짝 나가는데. 나만 못 나갔다.

"쌤~ 인사는 아무도 모르는 거래. 받아들여."라고 남의 일이 아니니 마치 부처님 같이 구는 부장님, "쌤~ 올해는 쌤 하고 싶은 대로 해요."라는 후배 교사, 여러분 덕분에 뜨거운 김에 폭 찢다 맛이 없어 냉장고에 처박힌 백설기 마냥 일주일을 보내다 가까스로 냉장고에서 탈출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렇게 억울하게 질질 짜며 늙어 가면 그게 더 억울하지. 그래, 올해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 본다! 두고 보자!'

전생에 철학이랑 결혼을 못하고 죽어서 원통한 총각 귀신이 나한테 붙었나?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음... 일단 내 직업인 '선생'과 관련된 것으로 줄여 보자. 수업? 수업 사례를 들어 볼까? 좋기는 한데. 내가 멍청해서 그런가? 수업 사례를 들어도 그렇게 못하겠던데. 뭔가가 부족해. 그... 알맹이나 씨 같은 거?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업 사례는 복숭아로 치자면 달콤하고 부드러운 복숭아 같았다. 그런데 씨가 없는. 혹은 내가 씨를 찾아내는 안목이 없었을 지도 모른다. 씨, 씨, 씨. 그건 한 마디로 복숭아의 중심, 즉 교사의 철학 같은 것 아닐까?

철학이라... 솔직히 철학과 관련된 책은 몇 권 산 적이 있지만 제대로 읽은 적이 없다. 역시 철학은 어려워! 라는 생각과 함께 철학이 아닌 다른 분야로 관심을 옮겼다 결국 철학으로 관심이 돌아오는 꼴을 보자니 전생에 철학이랑 결혼을 못하고 죽어서 원통한 총각 귀신이 나한테 붙었나? 그때 운명 같이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서 올라온 글 하나. '2021학년도 세계시민교육 중앙연구회 회원 모집 공고.'

아! 연구라는 단어가 끌렸다. 뭔가 깊이 있는, 본질적인, 마치 철학 같은 것과 약간이나마 어울릴 것 같은 단어라 그런지, 혹은 마음속에 학자라도 되는 양.

이럴 때는 일단 교수님을 기다리는 거다.

공문의 내용에 따라 줌에 접속했다. 줌에서 연구회를 조직할 것이라고 하는데 줌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지? 내가 들어갈 만한 연구회가 있을까? 아니, 아니, 나를 받아줄 연구회가 있을지부터 생각하는 것이 먼저겠지? 마치 대학생 시절 모둠 과제 수행을 위해 모둠을 조직할 때의 싱숭생숭한 기분, 낯설지 않은 기분이었다.

그래도 사회 생활 10년이면 풍월은 못 읊어도 눈치가 얼마데! 이럴 때는 일단 고수님을 기다리는 거다. 고수님들께서 줌 화면에 등장하신 후 차분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회 운영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연구회 무식자인 나로서는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 문득 우리 학교 애들이 떠올랐다. 서울까지 가는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 있을까 말까한 지역에서 십수년 살아온 애들이 정신 사나운 강남역 지하 상가 한복판에 서면 이런 기분이겠지?

이런 것을 옆친 데 덮친 멘붕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곧 진행하시는 분께서 각 연구회별 소회의실을 만들었으니 관심 있는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서로가 원하는 상대인지 얘기해보라고 하시는데... 이거 월 소개팅도 아닌 것이 면접도 아닌 것이 생전 처음 겪는 상황, mbti(성격유형검사)가 증명한 극내향형 인간인 나같은 인간한테는 멘붕인 상황이다. 하... 어느 연구회 방으로 들어가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지도안을 제작하는 연구회 방에 들어갔다. 뭐 학부모 공개 수업 때마다 교과 지도안을 제작하니까 눈치껏 세계시민교육 지도안도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런데! 소회의실에는 나와 말씀이 없으신 한 선생님과 썰렁한 적막만 있을 뿐. 결국 나만 두고 말씀이 없으신 한 선생님이 나가셨다. 이런 것을 옆친 데 덮친 멘붕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사회 생활 10년이면 멘붕이 와도 솟아날 구멍은 있나니!

여기서 다시 한번, 사회 생활 10년이면 멘붕이 와도 솟아날 구멍은 있나니! 이번에는 AI 연구회 방에 들어갔다. 사실 처음부터 AI 연구회 방에 들어가고 싶었다. 농촌의 학교에 4년을 근무하다 보니 지금 농촌의 모습 - 초고령화 사회 속 지속가능발전의 어려움 같은 것들? - 이 미래 한국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의 핵심 키워드가 AI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냥 AI 연구회도 순한 맛이 아니라 중간 맛 정도일 것 같은데 AI에 세계시민을 곱한 연구회라 중간 맛도 아니고 매운 맛일 것 같았다. 꺾다 놓은 보릿자루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같아 망설여졌다. 또 AI 연구회 운영 계획을 발표하신 고수님께서는 AI가 인간을 넘어서는 특이점, 즉 썩규올레리티(특유의 발음은 한글 자음과 모음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를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특이점이 뭔지도 몰랐고, 특이점을 진심으로는 커녕 걱정해본 적도 없었다. 솔직히 당장 내일 수업 준비가 걱정인 수준인 것이 현실 세계 속의 나다. 그런데 이런 쫄보와 무식의 콜라보가 막아 놓은 길이 한 번에 뚫렸다. 옆친 데 덮친 멘붕 앞에서 어떻게든 되겠지란 깡으로.

아 교수님들께서 여기에 계셨구나.

AI 연구회 방에서는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대화 중이셨고 그분들은 갑자기 들어온 나를 차분하게 맞이해 주셨다. 병원 진료를 받느라 세 분의 선생님들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 대화를 경청했다. 그리고 나는 느껴 버렸다. - 이 분들 상상력, 쩌다 - 내가 아는 몇 안 되는 교사들은 승진, 주식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은 있어도 미래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던데. 미래에 대한 사고를 자유롭게 펼치시는 모습에 속된 말로 뽕 갔다. 아 교수님들께서 여기에 계셨구나. 그분들이 하시는 만큼의 반만 쫓아가보자는 목표를 세웠다. 그 후 반 년 여의 연구회 활동 동안 연구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장경원 선생님, 연구회의 논의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문주호 선생님, 연구회의 논의에 물꼬를 틔워주시는 박재희 선생님, 연구회의 논의에 교육적 시각을 더해주시는 한양희 장학사님 모든 분께서 A알못인 나에게 멘토의 역할을 해주셨다. 연구회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나를 안아 주고 싶은 날

비록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발제를 준비하고 연구회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AI 시대와 법이라는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었다. 그 주제 중 AI 시대의 노동에 대해 관심이 생겨 교과 수업과 다른 연수에서 다루어 보기도 했다. A알못이었던 나에게 있어 의미 있는 성장을 한 셈이다. 나이를 한살씩 먹을수록 조금이나마 성장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 나이를 한살씩 먹을수록 그 소망이 참 어려운 소망이라는 것을 느낀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소망을 이루고자 반 년 여의 연구회 활동에 참여한 기록을 썼다 지웠다 하는 나를 안아 주고 싶은 날이다.